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21호](2016.1)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입교 80년 새해가 신묘의 종소리로 열렸다!

종정스님, 원단회 서교 통해 2016 년도 정진목표 제시

종정스님은 입교 80년을 맞이한 2016년 1월 1일 “입교 80년 제응(濟應)의 때, 상주를 증명하는 성지 오야소노로 「나무신묘」 하며 창립(創立)으로 돌아가 이행(利行)의 성지(聖旨)를 이어받는 여러분들의 약진을 기원합니다”며 전세계 신묘교도의 약진을 바라시는 서교를 주셨다. 아울러 원단회 법요를 통해 재작년에 복건된 접심도량과 나란히 하는 근본당우 복건 신묘지의 이축장엄과 대성부동명왕의 개안공을 봉수하는 2016년도의 정진목표와 실천덕목을 다음과 같이 주셨다.

정진 목표	입교 80년 발상(發祥)의 오야소노로 돌아가 창립(創立)의 등불을 밝힌다.
실천 덕목	1. 미래(희망)를 밝히는 공헌 2. 신묘의 이타행을

성지 오야소노 경내 ‘일여의 종’ 타 종으로 2016년 여명이 열리다

성지 오야소노 경내에 엄숙한 기운이 넘치는 순간, 어두움을 깨뜨리는 “일여의 종” 소리가 ‘지난 해’, ‘맞이하는 해’를 분리하자 숨을 가쁘게 쉬며, 영묘를 향한

신묘 교도들의 기도를 모아 원단 새벽 호마독경이 장엄하게 퍼지면서 2016년의 여명이 열렸다. 새해가 열리자 종정스님은 “금년의 간지는 병신(丙申). 병(丙)은 불의 형(兄)으로서 만물의 신장(伸長)을 나타내고, 신(申)은 신체(형태)로 이어져 초목이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부터 원숭이춤이 새해의 악기제거나 액병제거의 제례(祭禮)에 바쳐진 것처럼, 좋은 길조를 초래하고, 널리 세상의 길상을 바랍니다”며 서교해 주셨다.

2016년 한수행 개백, 1월 22~24일 전국 의처에서 개 최된다

2016년 한수행이 정초 벽두부터 서울, 부산, 창원, 제주 등 전국의 각 의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월 22(금), 23(토), 24(일) 3일간 새벽 6시 30분에 개시될 이번 한수행에서는 작년도에 이어 독경의 상당부분이 한국어로 진행된다.

특히 개백은 금, 토, 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수행 후 정사내에 많은 교도들이 모여 금년도 각자의 정진목표와 각오 등을 환담하고, 덕담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수행은 세계 52개국 9천개 이상의 정사 및 외부회장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중원(中願)은 1월 25일~29일의 5일간 개최되고, 결원(結願)은 1월 31일~2월 2일간 개최된다. 2월 3일은 절분회(節分會)로서 만원(滿願)을 맞이하게 된다. 절분회에서는 악귀를 쫓고 새해의 복을 부르는 콩뿌리기도 행해질 예정이다.

신노엔 부산 연제구 사회공헌활동으로 김치만들기 봉사

신노엔은 작년 11월 26일 부산시 연제구청에서 개최된 사회공헌활동의 하나인 김장담그기에 참여하였다. 이시카와 포교사, 김영준·정경숙·이현조 국원, 이정미 스지오야 5명이 함께 김장김치를 만들었다. 진여원의 김장김치 봉사는 3년째 계속되는 사회공헌행사로서 이번에는 300포기의 김치를 선물했다.



2015년 8명이 득도수계받아

지난 해 12월 3일 응현원에서 개최된 '득도수계식'에 8명의 교도가 참작하여 득도수계를 받았다. 득도수계에는 전세계에서 약 980여명이 참작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득도수계를 받은 다음날에는 오야소노의 신쵸지 내진에서 대일대성 부동명왕님을 참배하는 귀중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득도수계가 마무리되었다.

<이달의 유모어>

1.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절'은?
 2.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은?
- <정답은 제일 끝 페이지에 게재>

[제5회 변론대회] 가르침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김병건 청년교도

어릴적 부모님과 함께 여행가듯 기차 절에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타고 서울을 오고가며 신노엔에 다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힘든 학교생활 이었
 냈습니다. 하지만 어렸기 때문에 지만 점심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따뜻한 말

신노엔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다녔으나, 할머니님 집에서 매달 합동집회 하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 가르침을 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씀을 듣고 마음을 달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 기도하면서 중, 고교를 무사히 졸업하였고,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아침 기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수행이었습니다. 그 때 부산포교소가 생겨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점심수행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신노엔은 부처님과 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저에게 부모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두 법사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라고. 저는 잘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 고교 시절에는 힘들고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구타 및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자신만 힘든 가운데 병원치료도 받았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절에 가는 것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두 법사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부산에서 청년 AYG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들과 재미있게 정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영위향상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두 법사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가르침을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예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변화하여 부산정사의 행사나 일여기념, 새벽청소, 청년 활동 등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대승을 상송하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부산정사에 신노 게이슈사마께서 오실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청년 영능자, 청년 스지오야를 목표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변론대회] 게이슈사마와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이은 이수진 청년교도

2012년 어머니를 따라 신뇨엔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호기심에 법요에 참좌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 졌고 편안했습니다. 당시 집에서는 부

모님의 잦은 다툼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절에 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상황이 풀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기



도 덕분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날 유음정사에 참좌하였습니다. 변론대회 하루는 부모님이 크게 싸우셨고 빨리 그 상황이 끝나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의 싸움은 잦아들었고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데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청년회의 추천을 받아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회합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어느 날 부모님이 크게 싸우셨는데 저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정리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 상구보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상황을 보다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일정으로 만대원을 참배했을 때에는 시골의 할머니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영조님이 직접 사용하신 부엌과 방들. 영조님께서 천화하신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에서 영조님이 천화하신 그날의 상황을

그리며 기도를 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이고지 참배시에는 등산을 하며 정상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갈 수 있을까’ 하는생각도 들었으나,

‘끝까지 도전해보자’고 각오하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든 청년들이 오를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을 다니셨던 개조님을 생각하고는 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유음정사에 참좌하였습니다. 변론대회에서 여러 사람의 체험담을 들으며 공감했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이 종료되자 게이슈사마를 만나뵈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 때 게이슈사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가르침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침에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꼭 이어 받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게이슈사마의 손을 잡았는데 너무나 따뜻했고 게이슈사마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돌아온 지금부터는 세 가지 실천에 더욱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내년 입교 80년의 한수행 목표를 확실히 정하여 지켜가고자 다짐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신뇨를 전 해갈 수 있도록, 또 부처님께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변론대회] 세계청년회합 참가를 통해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된 이현일 청년교도

지난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세계청년 저녁에 숙소에서 싱가포르 청년들과 다시 회합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해외청년들은 "영조님 잘 모르고, 귀원도 자주 안하고 하여 큰 에 대해 잘 알지는 않지만, 영조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게 된 것 아닐까." "귀원하는 것이 너무 좋고, AYG에 참석한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 는 반응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열심인 해외 청년들처럼 저도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음정사에서 변론대회를 마친 마지막 날 숙소로 이동 중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이슈사마께서 AYG 참가 해외청년 전부를 보고 싶어하신다'고 하여, 부리나케 뛰어가 게이슈사마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게이슈사마께서 아주 따뜻한 미소를 띄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감동을 단단히 가져가 청년들께 전해갑시다' 며 한 명씩 악수해 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온 몸과 손이 땀으로 젖었고, 혹여 이 땀이 게이슈사마께 해가 될까 얼른 옷으로 닦고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하는 동안 AYG에 오기가 힘들었던 일, 언어 장벽으로 답답했던 응어리들이 악수 한번으로 확~ 풀렸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자 감사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귀한 만대원 참배와 AYG참석으로 이끌어주신 개조, 영조, 두 법사님, 게이슈사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부하신대로 한국청년들에게 이 감동과 기쁨을 전해가겠습니다. 내년 지류학원에 입학하여 바르게 교학을 정진하는 것으로 첫 걸음을 내디뎌 가겠습니다.



[제5회 변론대회] 한일간의 가교를 놓기 위해 ‘지 지않는 마음’을 각오하고 있는 오카모토 야스코 청 년교도

가족입신으로 5살 때 신노엔에 맺어졌으나, 대학생 때 어머니께서 앞으로는 자신이 쌓은 덕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때부터 정진을 시작했

유학이 끝나기 수 개월 전,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서울에 호텔을 짓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다시 근무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습니다. 졸업 후,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고, 영어공부를 위해 돈을 모아 유학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학을 위해 7년 반 근무



그 회사에 다시 취직하여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미미한 정진 상태이었으나, 가장 바라는 일과 이런 큰 힘을 주신 감사에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영어권에서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한국 가수에 흥미를 가진 것을 계기로 한국으로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상담접시를 받았습니다. 점심에서는 선조님이 한국과 관계가 있고, 한국 분들을 도와준 공덕으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만, 가기 전에 한국역사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야 한다는 영언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한국에 온 저는 지인이 없어 불안하기도 하여 우선 서울포교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청년들이 친절하게 해주어 불안하고 쓸쓸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와도, 개조, 영조, 두 법사님께서 저를 지켜봐주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원하면서 많은 법우가 생긴 것이 너무 기쁘고 절에 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한국에 회사가 설립되자 사장님을 비롯한 일본인 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역할이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기쁘고 유학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점 큰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되고, 절대 실패하면 안된다는 중압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고,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돌봐야 했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 못하는 성격이어서, 힘들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을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 걸까... 어느덧 기도를 잊고, 감사를 잊고, 나 혼자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마음을 바꿔야 한다, 약한 자신을 바꿔야 한다. 개조, 영조님께서 주신 이 길, 함께 우심세계를 펼쳐가는 신노교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심에서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좌절하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질까...

일여의 길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던 개조, 영조님, 자신의 쉼 곳보다 여러분들의 쉼 곳을 먼저 라고 목숨을 바친 두 법사님. 신노 교도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시는 게이슈사마를 생각하면서, ‘타인을 위해’ 라는 그 일면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으니 힘이 나고, 더 힘내자 라고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바빠지면 기도와 감사를 잊고 힘들게 되고, 힘들어지면 다시 개조, 영조, 두 법사님, 게이슈사마를 기도하며 견디는.... 그러한 반복되는 날들....

호텔 오픈이 다가오면서 더 바빠지고, 직원도 일본인 9명, 한국인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니 문제도 늘어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접시를 받았더니, “지금 호텔이 있는 곳은 옛날 전쟁터로 많은 사람이 숨진 곳입니다. 화형을 당한 여성이 나타나고 당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영언을 받았습니다. “싸움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나무 신노입니다...당신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중화제가 되면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유학 오기 전에 받았던 접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명동은 전쟁 때 불바다가 되고 모두 재가 된 곳입니다. 이런 뜻이었을까...

우선 영가천도와 호마를 올리고 제령님들과, 전쟁 속에서 고생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스태프들의 불만이 조금씩 줄어드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들어도 상대방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도 괴로울 것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령님들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등호마 단참 때, 게이슈사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역사상 국가와 국가간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어디에 있어도 개조, 영조님은 상주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어디에 있어도 가르침을 전하고 우심세계를 개연해 나가는 신노 교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주위에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신노를 전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활용해 꼭 한국과 일본간의 다리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이달의 유모어 정답>

1. 친절
2. 저절로 가는 길